

예술인 지원하고 ‘문화·관광 해남’ 입지 다지고

군, 올해 ‘전남 최대’ 문화예술진흥기금 58억원 조성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예술 통한 문화복지 실현

해남군이 도내 최대 규모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해 지역 예술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

16일 해남군에 따르면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통해 전문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재능기부예술단 등 지역 내 62개 개인과 단체에 3억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전남 도내에서는 해남을 비롯해 목포와 강진, 진도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지만 타 시·군의 경우 총 금액이 1억원에 미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해남군의 문화예술 지원에 통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2001년 조성한 해남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25년부터 기금 조성액을 기존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상향, 현재 58억원이 조성된 상태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든든한 재정 기반이 되고 있다.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문예술 지원, 문화예술단체 활동 지원, 재능기부 문화예술단 지원 등 3개 분야로 나눠 지원했다.

전문예술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 예술인 15명과 1개 단체가 선정돼 왕성한 창작활동을 펼쳤다. 회화·서예·공예 등 개인전 9회를 비롯해 무용·판소리 등 5회의 공연 발표회, 서적 2권 발간 등 풍성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 예술계의 창작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 분야에서는 총 38개 문화예술단체가 지원을 받아 해남문화예술회관, 망골관광지, 대흥사 주변, 우수영관광지 등 해남의 주요 관광지와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펼쳤다.

이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와 들을거리를 제공하며, ‘문화가 있는 관광 해남’의 이미지를 확고히 했다.



해남군은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통해 전문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재능기부예술단 등 관내 62개 개인과 단체에 3억5000여만원을 지원했다.

재능기부예술단 지원 분야에서는 8개 팀이 참여해 마을회관, 병원, 요양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공연을 진행했다.

예술인들이 스스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찾아 나선 이번 활동은 문화소의 계층에게

따뜻한 예술의 감동을 전하고, 예술을 통한 문화복지 실현에 의미가 있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문화예술단체가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그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을 신청하는 단체 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며 “한정된 예산 속에서 더 많은 예술인과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타 지자체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 보다 지속적이고 공정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

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은 12월 초 공고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영암, 프랜차이즈 등과 고구마 산업 발전 ‘맞손’

군, ㈜백미당·㈜담아 협약
아이스크림·라떼 등 출시

성심당 영암 무화과케익, 바나프레소 영암 고구마라떼 등에 이어 백미당 영암 고구마아이스크림과 라떼가 출시된다.

16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에서 프랜차이즈 ㈜백미당, 지역 고구마 공급업체 ㈜담아와 ‘영암군 고구마 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개척, 마케팅 홍보에 뜻을 모았다.

김영후 ㈜담아 대표와 민준연 ㈜백미당 본부장, 우승희 영암군수는 협약서에 서명하며, 영암 고구마로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는 모습을 창출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백미당은 12월 영암 고구마를 원료로 한 신메뉴 고구마 아이스크림과 라떼 음료 등을 출시하고, 본격 홍보마케팅에 나서기로 했다.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프랜차이즈 ㈜백미당, 지역 고구마 공급업체 ㈜담아와 ‘영암군 고구마 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개척, 마케팅 홍보에 뜻을 모았다.

군과 담아는 영암 고구마와 가공품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마케팅 지원도 병행한다.

우승희 군수는 “지역 대표 특산물인 고구마와 ㈜백미당의 노하우가 만나 전국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는 특별한 맛이 탄생할 것으로 믿는다”며 “영암 농가의 소득과 기업 매출을 높이는 상

생발전을 탄탄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프리미엄 아이스크림과 커피 프랜차이즈인 ㈜백미당은 전국의 주요 백화점 등에 61개 매장을 운영하며, 유기농 우유를 원료로한 소프트아이스크림과 라떼 등을 판매하고 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완도, 연말 뮤지컬·클래식 공연 풍성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의 날’...다양한 공연 마련

완도군은 군민들이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오는 26일에는 ‘쫄바 버스 타고-소원을 들어주는 요술 지팡이 대소동’ 뮤지컬 공연을 완도문화예술의정당에서 선보이며,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의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예매는 19일 오후 1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다.

12월 3일에는 세계적 명성의 ‘뉴욕 필하모닉 스트링 파르뎃’ 초청 공연이 예정돼 있다. 군 단위 지자체에서 세계적인 클래식 연주 단체 공연을 유치하는 사례는 드물어 완도군의 문화예술 기획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12월 31일에는 연극 ‘여보, 나도 할

말 있어’가 군민들을 만난다. 이흥렬, 이윤미 등 유명 배우가 출연, 가족 구성원들의 감동을 풀어내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소통과 이해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군은 그동안 군민들이 타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문화누리카드 이용 시 관람료를 대폭 할인해 문화소의 계층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왔다.

한지영 군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의 날을 통해 군민들께 수준 높은 공연을 정기적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연말 가족들과 함께 다양한 공연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



아직 사고가 나지 않았다 해서 과연 앞으로도 안전할까요? 더 이상 운에 맡기지 말고 이젠 시스템으로 지키세요!

"바이셀프는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전 산업 디지털 안전관리 플랫폼입니다."

7대 핵심요소 기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규모 특성별
최적화된 맞춤형 이행



근로자는 위험 불안 해소,
대표자는 중재법 대응 완료!

2025 한정 프로모션 최대 **60만원 혜택!** 연간이용권 가입 시 최대 **100만원 혜택!**



프로모션 및 도입 문의 062-971-1775

중대재해처벌법, 아직 대비하지 못하셨다면?

네이버에 바이셀프를 검색하세요.

